

구태어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더라도 이미 선배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듯 합니다. 말은 분야의 양은 그때로 둔 채 질적으로 양적으로 분야 마다의 요구되는 것이 증가된다면 평형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것은 쉽게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더우기 단지 질병만을 다루는 것이 간호가 아니며 환자의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 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환자중심의 포괄적 간호의 개념에 입각해 볼 때 또한 불가피하게 연관술 지니고 일을 해야만 하는 다른 여러 학문의 발달을 생각해 볼 때 엄청나게 증가되어야 하고 되어질 간호업무의 양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를 분류하여 전공분야를 세분화 하지 않고는 도저히 한정된 우리의 능력으로서 감당치 못 할 일이라고 생각 됩니다.

더우기 병원에서 각 과 마다의 Rotation 은 전혀 개인의 취미나 능력을 위주로 한다가 보다는 업무량을 위주로 행해지고 있음은 흔히 보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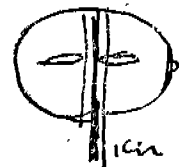
입니다. 즉 힘든 Ward 에 몇달 있었으니 좀 한 가한 Ward 로 보내준다는 식의 무사려한 처사가 행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범론에 해당되는 이야기로서 성급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으나 원칙적으로 전공분류가 이루어지더라도 반드시 내과간호, 외과간호, 소아과간호 식으로 나누어야만 한다는것은 아니며, 원칙적인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더 나은 Ideal 한 전공분야의 구분을 생각해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호업무에 대한 Order 체계의 정상화 및 간호전공분야의 구분의 두가지 과제를 말씀드리며 저의 이야기는 끝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임상에서의 개선점을 논하고저 한다면 끝없이 많은 점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간호교육의 혁신"이라는 Title 하에 의견을 나누는 만큼 교육에 관련된 개선점중 가장 근본적이라 생각되어 두가지 과제를 제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간호원 상은 바람직한가?>

문제와 과제	간호원이 본	성모병원 신경외과 간호원 문 숙 회
--------	--------	--------------------------------------



필자는 최근(1972년 2월)에 졸업한 간호원으로서 10개월도 못되는 임상경험을 되새겨 보면서 타인이 보는 간호원이 아니고 간호원 자신이 보는 간호원상을 너무 주관에 흘렸거나 보편·타당성이 없을까 염려하면서도 솔직하게 써 나가면서 여러문제와 발견과 해결을 시도하고자 한다.

우리의 간호사업이 구미식 간호, 일본식 간호의 두 조류를 타고 질적이나 양적으로 괄목할 만치 발전한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다. 그러나 남존여비의 사상과 남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을 천시하는 유교적사상이 뿌리 깊게 박힌 한국사회에서는 아직도 사회의 외식 길이에서는

재래의 교육 받지 못한 간호원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졌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개념적인 인식을 바꾸어 가는데는 여러문제가 있겠으나 필자는 간호활동의 실제적인 측면에서 내적인 문제 혹은 조건과 외적인 문제 혹은 조건과 나누어 보았다.

첫째 내적인 문제로서 간호원 자신의 간호에 대한 올바른 개념과 철학을 들고 싶다. 간호에 대한 개념을 정말 훌륭하게 문서화된 것은 많다. “환자(인간)를 이해하고 환자의 요구에 기초를 둔 환자 중심의 전인간호를 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르는 간호계획은 단지 문제점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장기 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간호하는 것이라야 하며 전문직 간호원은 독립된 가능자로서 간호의 진단을 내리고 간호 문제를 규정하는 능력과 과학적 지식에 근거를 두고 간호계획을 세우고 이에 합리성 있는 간호법을 선택하며 실시할 줄 알아야 하며, 항상 새로운 지식면에서 보다 향상된 간호원리를 간호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대한 간호 통권 40, Vol. 8, 간호업무에 있어서의 미래상, 이성덕)

그러나 하루 8시간의 근무를 이러한 개념과 간호철학을 인식 하면서 근무에 임하는지 의문스럽다. 즉 이러한 간호의 개념과 간호의 행위가 부합되지 않는 행위 혹은 행동의 결과를 볼 수 있다. 여기 한 예를 들어본다. 오후 injection time 때 환자들은 자기에게 처방된 주사에 이의없이 주사를 받아 들었다. 그런데 disc 수술한지 3일째 되는 어느 환자는 나중에 맞겠단다. 환자 자신이 말하는 주사거절의 이유는 수술 부위가 아프기 때문에 모든 것을 환자 자신의 schedule에 따라 나중에 맞고 식사도 나중에, 모든 것이 나중에이다. 그런데 간호원 자기에게 맡겨진 환자 하나하나가 간호원의 계획대로 응해 주어야 그

날의 계획된 업무를 무사히 끝마칠 수 있는데 이러한 환자가 한명만 있어도 간호원의 신경은 곧두서게 마련이고 대부분의 경우 환자의 불평에 상관없이, 친절하게 이해를 시키려는 말 한마디 없이 injection을 한다. 또 약을 잘 먹지 못하는 수줍은 어른 환자가 있다. 그런데 간호원은 “약 잡주세요” 한마디 하고는 그 많은 분량의 약을 한 입에 털어 넣어주고 환자의 거의 울상이 된 얼굴을 돌아 보지도 않는 행위, 정말 바람직한 일일까? 정말 환자중심의 간호가 머릿속에 들어 있을까? 솔직하게 말해서 간호원의 8시간 업무는 환자 개개인을 중심으로 계획된 것 보다는 간호원의 업무량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계획된 느낌이다. 이러한 사소한 문제에 부딪칠 때 마다 간호원의 기능문제, 능력문제 더 나아가 자격문제까지 논하고 싶고, 또 무엇이 그러한 행위를 하게 했을까 하고 생각도 해 본다.

간호직은 여성만이 할 수 있는(남자 간호원도 있지만) 여성에 알맞는 직업이라고 한다. 많은 조사에 의하면 기혼 간호원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현직에 있는 대부분의 간호원은 결혼 적령기에 달해있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대한 문제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경우도 많다.

둘째 외적인 문제로서 간호업무중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수행하는 절에는 별로 이렇다 할 갈등이 없다고 본다. 필자가 incharge nurse의 경험이 없기는 하지만 처방에 대한 의의는 동료간이나 수 간호원 혹은 처방넌 의사와의 이해력 있는, 과학적인 대화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의사의 일방적인 처방과 처방에 의해 수행하는 것 보다는 환자의 편에서 환자의 problem을 전달하고 해결해 주는데 의사나 간호원이 인식함이 없었으면 하고 또 간호원 독자적

으로 complain 을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하고 과학적인 재치가 요구되도 물론이다. 그런데 의사의 처방지시에 please mouth care, suction frequently, 혹은 please bed bath 라고 나와 있으면 간호하는 간호원의 본연의 자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이다.

종래의 간호원은 전공분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었다. 굳이 없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 Ward에 계속 근무하던 간호원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공에 가까워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정신과 간호원은 정신과에서, 애기방 간호원은 애기방에서, 내과간호원은 내과에서 전문간호원이 된다. 우리가 전문직답게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하고 또 Able Nurse 로 긍지를 갖도록 간호업무에도 전공분야를 가지자고 제의하고 싶다. 이 점에 관해서는(대한간호 동년 40호Vol. 8에서)일찌기 이성덕 선생님께서 간호업무에 있어서의 미래상에서 제의하신 바 “전공분야에서 inservice education 을 받아 지식과 기능을 향상 새롭게 하며 게다가 환자간호 연구로 보다 나은 환자 간호의 길을 모색하면서 자기분야에서 경험을 쌓아 올린다면 실재문제는 낙관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다. 솔직하게 말해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필요성은 자주 느낀다. 그러나 그러한 자극은 자주 오지만 그 강도에 있어 학생때의 시험이라는 자극보다 강하지 못하기 때문인지 근무를 마치고 기숙사에 들면 모든 것은 머릿에서 사라져 버리고 다음날 정신적인 혹은 학문적인 준비없이 임상에 나가게 되고 이러한 생활은 계속되어 공부필요성의 빈도는 공부 필요성의 강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어 학생때의 지식창고는 비어만 간다. 학생간호원을 가르쳐야 하는 개개 졸업 간호원의 책임과는 상당히 모순된 원상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졸업 간호원의 대부분이 이러한 상태를 면치 못하는

때는 두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임상에서 학생때와는 달리 졸업간호원으로서의 책임과 과도한 업무량은 8시간 긴장속의 근무끝에 잔잔히 바라는 것은 편안한 침대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은 심정뿐인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다음날 근무에 적어도 육체적인 준비가 되기 때문이다.

둘째는 간호직은 전문직이라고 하지만 종사분야에 대한 전문간호원 자격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certification?)이 없는 것이다. 물론 학문을 하나하나 알고 자기 것으로 삼는 데는 더 없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으나 학생때의 시험처럼 강력한 자극제가 없고 또 그렇다고 누가 공부 안한다고 탓하는 사람없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한없이 해이해 질 수 있는 상태에서는 외적인 강한자극이 필요하다고 본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직업에 만족하고 항상 새로운 기분으로 일하는 사람이 몇 있을까란은 내가 접해 본 대부분의 간호원이 그 간호직을 굉장히 지겹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된다. 이러한 지겹다는 사상은 졸업한 햇수 즉 경력이 많을수록 이러한 사상이 짙다. 그리고 이런 권태사상은 어떤 channel 을 이루면서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한다. 물론 인간인 이상 자기직업에 회의도 느껴보고 권태도 느껴 보는 것이 당연하나 그 강도가 길고 또 오래 갈 경우에는 좀 곤란하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 병은 6개월 이전에 는 오지 않는다. 왜냐하던 1-3개월 사이엔 자기 직업환경에 적응하려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면 학생때의 임상실습의 바탕위에 세워진 6개월의 경력이 직업에 권태를 느끼게 만든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물론 개인의 반성과 각오에 맡길 일 이기는 하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개인의 철학이나 각오에 맡긴다는 안이한 방법을 택할 수는 없다. 물론 병원행

정에는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졸업
간호원도 학생 간호원처럼 rotation 하면 만사를
부패케하는 권태로움은 없다고 본다. rotation
하는 방법이나 기간에 대한 세심한 연구하에 음

직이면 학생때의 실습 경험보다 몇 배로 유익하
고 값진 배움의 가치가 있다고 졸업한 지금 절실
히 느끼고, 또 자기의 적성에맞는 전공분야를
택 할 수 있다고 본다.

〈간호원 상은 바람직한가?〉

간호교육자가
본
문제와
과제

연세대학교 교수, (본회 회장)
전 산 초



목 차

- | | |
|--|---|
| <p>I. 서론</p> <p>II. 교육자가 본 간호원의 "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간호의 철학을 지닌 "상" 2. 자발적인 윤리관을 지닌 "상" 3. 현대적 지도자의 자격을 지닌 "상" 4. 인간의 정서적불균형을 조화시 | <p>키는 능력을 지닌 "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연구심과 창의력을 지닌 "상" 6. 실제적인 간호활동면에 있어서의 간호원의 "상" (1) 전인간호와 지역사회간호 (2) 재활간호의 함축 <p>III. 문제와 과제</p> |
|--|---|

I 서론

이렇게 여러분을 모시고 제 뜻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교수협의회 준비위원장을 비롯한 준비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제가 간호교육의 혁신입니다. 요즘 이와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연세대학교에서 "고등교육의 개혁"이라는 International Symposium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계속 참석하면서 느낀바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오늘 저의 주어진 과제라고도 생각이 들어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이 시대는 정말 급변하는 시대라는 것을 새삼 다시 한번 느꼈으며 전문직 교육을 자처하려면 부득이 개혁이 오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다는 긴박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초조함을 더욱 느꼈을

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는 개혁이란 것은 어떤 한 사람의 주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협의회와 같이 모여 협의하고 논의하고 서로 연구하여 협심해 나가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간호교육의 혁신을 가져오려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의 뜻을 모아 합의된 형식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셋째로는 이 혁신이란 것이 어떤 무슨 발명이나 새로운 창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보다 앞서서 상호접촉하는 가운데서 즉 교육자와 교육자의 접촉, 행정가와 교육자의 접촉, 학생과 교수의 접촉, 현 전문직 간호원과 간호교육자와의 접촉등 이러한 접촉에서 이해하고 필요성을 느끼는데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넷째로는 대학이란 것, 교육이란 것은 시대를